

# 보다 발전적인 우리나라 次世代 林業을 위한 提言

허 남 주 / 주해임산(주) 대표

## 1. 序 論

山林은 人類歷史의 創造는 물론, 生命의 始發의 역할까지 間斷없이 수행해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의 먹을거리·입을거리·의지할 거리와 生物 生存의 절대 절명의 요소인 산소를 무 한정 제공하고 있는 숲과 나무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진정한 가치를 計量的으로 생각해 보았는 가. 또한, 이러한 山林이 모두 파괴되었다 고 가정했을 때 일어날 사태에 대해 얼마 나 심각히 고려해 보았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林業이란 生産의인 山林을 지키고 증대시키며 그곳으로부터 인간이 필요한 각 종 생활 필수품 특히 섬유등의 木質係 主 産物과 副産物을 생산함을 목적으로 한 産 業이며 이를 傳統的 林業이라고 본다. 그러 나 근래에는 그런 可視的 生産 측면보다는 休養이나 水資源 保護 그리고 점차 심각해 져 가는 公害등 大氣環境의 淨化 역할 부문 으로의 비중이 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林業의 현실은 어 떠한가. 山林廳은 林業의 行政을, 林業 研究 院과 育種 研究所등은 研究와 調査를, 大 學과 實業係 教育機關은 後世 林業人 教育

을 담당하고 山林契와 山林組合·각 山主들 그리고 각종 林産加工 業體들이 일선 現業 과 生産을 맡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실제이지만, 문제는 실행부서인 최일선 행 동대원 그룹이 너무도 危弱하며 낙후되어 있어 장래 비전과 진취적 아이디어도 별로 없이 그야말로 구조적으로 허공에 뜬 실속 없는 모습으로 밖에 존재치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볼때는 우리 한국이 國土綠化 를 조기 달성하여 造林이 가장 성공한 경 이적인 국가라고 찬사섞인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그 후속으로 반드시 연계되어 뒤따 라야 할 장래를 위한 內實있는 計劃林業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해서 他 産業에 비 해 상대적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林業自體가 기술적으로 처졌다가 보다 오 늘과 같은 각 업종간 縱橫으로 극심한 競 爭 經濟原理로 보아 他 産業의 발전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2. 보다 분명한 林業 哲學을 갖자.

서론에서 잠시 이야기 했듯이 林業은 이 세상의 산업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地球上에서 가장 많은 生命資源集 團을 포용하는 숲과 나무를 基幹으로 하는 生産業이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

“

**總體임업개념을 도입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너무 분산되고 산만한 것을 임업, 임산뿐 아니라 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틀아래서 미래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 특히 인간의 자연귀소본능을 충족시키는 舍目的의 새 임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하고 거대하며 아주 복잡한 여러 개체들의 生態가 종합적으로 연구되고 조사되어야 하는 광범위한 業種인 것이다. 석유를 포함하는 鑛物資源이나 水産資源등은 모두가 有限資源이거나 他 資源을 먹이로 해야 하는 일종의 자원의 變形에 불과하나, 이 林産資源만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거대한 숲의 綠色工場에서 無로부터 有를 만드는 創造資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創造物質을 어떻게 하면 더 大量化하고 또한 最小의費用으로 더 高價値化 할 것인가 하는 뚜렷한 信念과 目的意識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의 林業이 餘他 산업들과의 극심한 競心에서 보조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의 전자나 자동차 항공산업 등과 같은 소위 HIGH-TECH이라고 하는 산업과 비교해 절대로 임업이 LOW-TECH이거나 舊時代의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더 안된다. 그래서 임업을 위한 진지한 哲學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임업종사자 모두가 임업은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며, 언젠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진취적이고 必要 不可缺한 산업이 된다는 신념을 갖는 目標意識부터 뚜렷이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숲과 나무를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利用 開發해야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最終 產物의 商品의 價値 설정과 MODEL의 개발을 先行시켜야 한다.

그러면 아주 기초 단계인 이 숲을 왜 가꾸며 어떤 목적으로 키울 것인가 즉 休養林이나 水源 保護林이나 또 生産林이나가 분명한 전체적인 숲의 設計가 이루어지고 임업의 최종 목표인 生産材일 경우 生態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自然형태로 유도하여 極性狀일때의 林相의 有用성과 價値 極大化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본래 자연 형태인 NATURAL FOREST TYPE과 TREE FARM FOREST TYPE을 어떻게 어디에 조합할 것인가하는 次代의 經濟的 利益과 公益의 目的을 함께 충족시키고 또 생태계 변형이 없이 영구한 보속 생산과 보존이 동시에 이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임업이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던 南洋材가 요즘 輸入이 끊기면서 그 거대한 크기의 南洋材를 우리 국내 木材所에서 마구 쪼개 쓰던 화려한 일들은 전설속으로 슬어져 가는 변화양태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지 않은

가. 이 시각도 우리 林業의 四圍를 위압해 오고 있는 環境問題는 임업내에서 그 彼岸處를 찾는듯 했으나 오히려 임업 게그책임을 덮어 씌우려 하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임업의 낙후를 자기 발전의 발판으로 삼으려하는 여타 산업들에 犧牲洋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뚜렷한 우리의 主體와 主張을 갖쳐 않으면 안된다. 얼마전 변라질 리우회의에서 극명하게 들어났듯이 유럽의 공업 선진국들이 환경과피 책임을 소위 林業開發 途上國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숨은 의도 즉 임업을 타산업에게 從屬시키려는 저의에 대한 防衛로서도 自己保存의 뚜렷한 哲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우리 임업의 現住所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8·15 전과 6·25로 인해 대량과피 되었던 산림을 오늘과 같이 綠化시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모력을 해 왔으며 林業人들의 공로도 결코 적지않았다고 본다. Ha당 材積이 18 m<sup>3</sup>에서 40 m<sup>3</sup>으로까지 증가된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量의 증가에 대응하는 質의 高級化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한다. 다시 말해서 각 수종의 令級林들의 수확시기에 일치하는 최상의 用도와 量의 極大化, 品質의 最高化에 대한 배려가 너무도 부족되었다고 반성된다.

그간 수십년동안 南洋在의 대량 수입은 우리나라 선진화 과정에 수많은 기여를 했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南洋在와 北美在 原木들이 우리나라 발전시점에 없었다면 소량의 國內在로서는 그 수요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반대의 현상 또한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잘못하다가는 국내 임업의 전멸위기가까지 몰고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林産物의 質이 급강하되었는데 이는 임업 종사자들의 산업 이탈과 林業所得의 상대적 감소와 生産費의 급속증가 그리고 勞動質의 저하로 인해서 적정시기가 도래된 造林群落에 대한 밀착기 및 間伐등의 사후관리 집행불능으로 未來木의 質과 量의 下向化, 小徑材등의 利用과 活用率의 감소 그리고 우수 林業技術의 영향력 왜소화등 利益産業으로서의 임업이 퇴락되어 가고있다. 또한 임목의 상대적 價値(특히 價格)는 타산업 제품들에 비해 너무 크게 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해서 이제 임업은 굵어죽기 십상인 산업이며 모두들 기피하는 업종으로 전략해 가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진실로 얼굴을 붉히고 자책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기의 전환점이며 새로운 임업 즉 次世代들의 미래를 위한 NEW FORESTRY 개념으로 지금까지의 고식적이고 수동적인 임업의 舊角을 용감히 벗어던지고 전자 등의 HIGH-TECH 산업들에 대등한 超 現代知識과 次代의 思考가 주축이 되는 임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결코 看過해서는 않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처지고 말것이므로 지금부터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NEW FORESTRY 개념을 정의하고 정리하여 理論과 實用體系를 만들어 現業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結 論

17, 8세기경 영국과 독일등 유럽 각국은 産業革命의 지원 강요로 과도한 濫伐과 낙엽채취, 開墾을 요구하는 酪農·草地·농토 확장등의 山地 開發로 인해 유럽의 울창했

던 산림이 황폐케 되었으며 곧 심각한 목재 기근을 초래했었다. 양국 모두가 국토 중 60%의 산림이 순식간에 10%이하로 급락했었으나 결국 그들의 先覺者는 끈질긴 연구와 각성으로 대대적인 조림과 새 임업 기술을 개발시키고 또한 임업인의 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밭과 牧場 그리고 裸地가 다시 산림화하고 계획적인 林相을 가꾸어 독일은 현재 산지환원이 30%까지 이루어졌으며 Ha당 재적은 280m<sup>3</sup>로 세계적인 임업국이 되었다. 영국은 15-20%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세계 산림면적은 약 41억 3천 2백만 Ha, 총 축적은 3,575억m<sup>3</sup>(활엽수 65%, 2,330억m<sup>3</sup>, 침엽수 35%, 1,245억m<sup>3</sup>)이며, 한국은 640만 Ha에 2억 4천만 m<sup>3</sup>의 축적으로 국토의 63%가 산림이지만 세계적인 임업국으로의 발전은 요원하다. 그러나 차세대와 그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산림을 사수해야 한다. TOTAL FORESTRY

(總體 林業)개념을 도입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너무 분산되고 산만한 것을 林業, 林産뿐 아니라 環境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틀 아래서 미래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 특히 인간의 自然 歸巢 본능을 충족시키는 合目的의 새 임업으로 추진되어야겠다.

그러자면 우선 국내 자원의 確실한 量的, 質的 파악과 分布狀況, 樹種別 生態的 특성이 부합하는 完熟林 생산 시점의 이용계획 모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林業政策과 山林 經營研究, 造林 撫育방향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또 부족자원을 조절하기 위하여 공급 가능성 예측과 공급처의 다원화, 해외 자원개발, 목재 무역동향 및 각국의 자원정책 방향 연구에 과감한 투자와 동시에 국내의 임산자원의 유통과 內材 생산기반의 조성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쓰레기를



줄임시다

마음만 먹으면 해내고야 마는  
위대한 우리 민족,  
쌈쌈이도, 쓰레기도 우선은 10%씩  
줄여 봅시다.